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안식일 성경 교과

장년부

2007년 4월 - 6월

5
10
15
20
26 가
31
36
41“ ”
47“ ”
52“ ”
57
62
67

가

가

[]

:
:/
2 32
:
:
: 054 - 435 - 1843
: 054 - 434 - 4521

www.sdarmgc.org()

www.sdarm.or.kr

e-mail
sdarm@sdarm.or.kr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당신의 축복된 낙원에서 영생의 특권을 누리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인간이 유혹자에게 굴복해서 죄를 범했지만 그들은 구속될 수 있었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첫 조상들이 비참하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긍휼로 격동되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주셨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12.5.2.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이 계획은 인간이 하늘 궁정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되었다. 비록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음의 잠을 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급은 확실하다. 곧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히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부활할 것이다. 죽을 인생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영생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이번 기에 우리는 주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앞으로 놀라운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나 혹은 생활 스타일의 선택에 개의치 않고 어쨌든 자동적으로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낙원에 도달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들 자신의 이론들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진심으로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옛적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이 참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구속의 경륜은 무엇인가? 비록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건전하고 옛적 길로서 적절하게 세워지거나 혹은 정당하고 올바른 종교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런 단순한 공언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의미한 것이다. 창조주와의 살아있는 교제, 여기에 바로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설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인류의 여명기로부터 운명지어진 이 지구 도성의 최후의 심판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오직 소수의 충실한 남녀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의 경륜에 의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기 동안 이 안식일 성경 교과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함으로써 낙원을 위한 계획이 어떠함을 잘 알도록 할 것이다.

- 세계 대총회 안식일학교부 -



하나님께서서는 도시들에서 사역하는 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초청을 하신다. 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서 이곳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하는 도시 환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업에 침투하여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런 장소에서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갖고 계시며 도시에 들어가서 당신의 양떼들과 함께 일할 당신의 사역자들을 임명하셨다.

우크라이나의 수도로서 가장 큰 도시는 키예브이다. 1990년도에 종교자유가 허락된 때로부터 소수의 신도들이 이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현대진리의 복음의 빛을 간직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의 성경교사들이 목사로써 임명되고 이곳의 형제자매들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고 있으며 그들을 매주일 맞이할 수 있는 더 넓은 예배당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나라의 중앙 북부에 자리 잡고 있는 키예브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상적인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서부유럽 사이에 연결지점이 되고 있다. 이곳에 적합한 예배당이 있다면 이 도시 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 까지 현대진리를 전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앙 때문에 수십년간 핍박을 받아온 키예브에 있는 성도들은 사업이 지금 발전해야 할 긴급함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누리는 지금이야말로 이 놀라운 구원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 매 순간이 소중하다.

여러분도 또한 키예브에 있는 사업을 도울 수 있다. 250만이 넘는 이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복음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을 위하여 지금 귀중한 시간에 기도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또한 이 도시 주변의 모든 곳에 빛을 비출 등대를 세우는데 여러분께서 후한 연금으로 도와주시기를 빈다.

-동유럽 연합회 형제자매들로부터-

“
 (33:6).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부조와 선지자, 36.

참조할 연구교재: 부조와 선지자, 33-43.
 살아남는 이들, 13-19.

4월 1일

1.

가. 가? 33:6, 9.
 가? 1:1-3.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골 1:16 인용됨.]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분의 어전(御前)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속한 날개로 빨리 날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 1:3) 모든 천사들 위에 최상권을 가지신다.” -부조와 선지자, 34.

. 가? 17:12.
 가 가? 1:8.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36.

2

가. 가 가? 89:14; 4:16.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부조와 선지자, 34.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 보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셨다. ‘궁홀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 (시 85:10)다.” -시대의 소망, 762.

가? 103:20, 21.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 만하였고 무아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부조와 선지자, 35.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 저들의 생사가 좌우된다. 가장 높은 스텝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시대의 소망, 785.

“주께서 이 [천사들을] 창조하셔서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하였을 때에 그들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다. 그들의 사랑스러움과 거룩함은 그들의 높은 지위와 조화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체로 부요하였고 하늘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영문시조, 1898.4.14.

3. 가

가. 가? 28:12 - 15.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그는 크신 창조주의 어전에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印)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너는 기름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겔 28:12-15).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겔 28:17),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 14:13, 14).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 부조와 선지자, 35.

가? 13:10; 10:4.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루스벨은]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大權)을 갈망하였다.” - 부조와 선지자, 35.

4.

가.

가 가?

가?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사들은 루스벨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루스벨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질서를 세우셨으므로, 이 질서를 벗어남으로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신에게 파멸을 초래할 것이었다. 그러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루스벨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 갔다.” -부조와 선지자, 36.

가? 55:21.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그는 모호하게 그리고 은밀히 일하였는데, 한동안 그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여 그의 진정한 목적을 감추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 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와 동등의 지위로 높이는 처사는 루스벨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며 루스벨 역시 그와 같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37.

“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도록 선동하고 그의 회하여 있는 천사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만을 불어넣으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가 불만을 제거하고 불만을 품은 천사들을 하늘의 질서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척 하였다. 비밀리에 불화와 반역을 선동하면서도, 그는 능숙한 술책으로 충성을 촉진시키며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적인 양 보이게 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38.

5.

가. . 12:7-9.

“[루스벨은] 거의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결정에 이르렀으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토록 큰 존경을 받던 자가 자신의 그릇되었음과 그의 상상이 잘못되었음을 자복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힘써 오던 바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39.

가? 14:12-15.

가? 28:17, 19.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이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단을 떨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가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므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리나라와야 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급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부조와 선지자, 42.

6:54

1. 하나님의 아들은 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가?
2. 하늘 정부의 계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3. 우리는 어떻게 루스벨의 개인적인 불만의 시발점의 단계들을 피할 수 있는가?
4. 수많은 천사들이 루스벨에 의해 영향을 받은 방법에서 우리는 어떤 경고를 취해야 하는가?
5. 이런 위기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지혜로우심을 설명하라.

“ 가 가
가 가 (33:23, 24).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 형상을 회복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복음의 영광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12.5.2.

참조할 연구교재: 부조와 선지자, 52-62.
살아남는 이들, 42-50.

4월 8일

1.

가. 가? 1:8 - 10.
가? 2:9.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사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셨으며 그분과 동등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으며 그 본체의 형상이셨으며 하늘 아버지의 대표자이셨습니다.” - 영문시조, 1893.2.13.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최고의 의미로 하나님입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지요, 영원히 하나님입니다.” - 성경주석 [E.G. 화잇] 5권, 1126.

가? 10:30.
가?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집약되어 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 영문시조, 1898.11.24.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논쟁에 들어가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다루지 말아야 할 주제이다. 이것은 신비이며, 대적은 이런 논쟁에 들어가는 사람을 분명히 타락으로 이끌 것이다.” - 설교와 대화 1권, 343.

2.

가.

가? 1:26; 100:3.

가?

“아버지께서는 지상에 거할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즉시 실행하시고자 아들과 상의하셨다. 그는 사람을 영원한 안전에 이르게 하기 전에 그의 충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의 시간을 주실 것이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 마침내 천사와 동등하게 될 것이었다.” - 살아남는 아들, 19.

가? 6:13 (); 33:27 - 30.

“구속의 큰 계획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세워졌다. 그리고 우리의 대치물과 담보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속의 대속물이 되는 놀라운 계획에서 홀로 책임을 지실 것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에서 그들 양편 사이에 회의가 있었고 그 평화의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하늘의 지존자, 영광의 왕께서는 종이 되실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독생자는 타락한 인류의 대속물로서 주어졌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이 세상에 당신 자신을 주셨다. 당신의 아들과 연합하여 구속의 경륜을 세우신 것은 타락한 인간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선물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믿음으로 세상의 구속주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갈바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사랑의 표현을 아담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신다. 이 제물이 당신의 율법의 거룩함의 불변성을 나타내셨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공의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었다.

전능자이신 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또한 부드럽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그분의 속죄하는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 영문시조, 1897.12.23.

3.

가.

가? 1:27.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높은 품위에 합당한 자질을 부여 받았다. 인자하고 균형진 모습, 완전하고 아름다운 용모, 행복과 희망과 건강미로 가득 찬 얼굴빛으로 그들은 외견상 그들의 창조주와 거의 비슷하였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아담과 하와의 육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지성(知性)과 영성(靈性)의 모든 면에서도 창조주의 영광이 반영되고 있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히 2:7) 지음을 받고 높은 지적, 영적 은사를 부여받은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우주의 경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도덕적 책임과 의무도 헤아릴 수 있었다.” - 교육, 20.

가? 8:3-9.

“행성들을 제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그분의 능력으로 붙드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동일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위해 섭리하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의무들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 교회증언 4권, 415, 416.

1:31; 2:8, 15.

“아담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로 둘러 싸여 있었다. 또한 모든 욕구는 충족되었다. 영광스러운 에덴동산에는 죄가 없었으며 퇴화의 흔적조차 없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거룩한 한 쌍의 인간과 더불어 자유롭고 애정이 어린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행복한 새들은 저희 창조주를 향해 자유롭고 즐거운 찬송의 노래를 힘껏 불렀다. 행복하고 친진난만한 분위기 가운데서 자라는 평화로운 짐승들은 아담과 하와의 주위에서 뛰어 놀았으며 저희 말에 순종하였다. 아담은 완전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창조주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존재였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였다.” - 가려뽑은 기별 1권, 268.

4.

가.

가? 2:9, 16, 17.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을 따라 죄에서 자유롭게 또한 인체기관들이 잘 발전되도록 창조하셨다. 땅은 다만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는 지적 존재자들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부를 먼저 증명하시고 그들의 순종심을 시험하셨다.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로 세상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영문시조, 1879.1.23.

가? 3:1 - 13.

“아담의 시험이 적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의 죄를 심히 중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일로 그를 시험하셨고 그분이 정하신 금령으로서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형벌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만일 아담이 그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런 가장 작은 시험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더 큰 책임을 맡겨도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보다 친밀한 교제를 취하도록 하신 더 큰 시련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사단의 더 명백한 공격에 노출된다면 두드러지게 실패할 것이었다...”

아담은 그 환경아래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하신 일을 행하므로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두었고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대항하여 전쟁을 하였다. 영감의 펜은 우리의 첫 조상의 역사를 정확하게 추적하므로 하나님의 가장 경미한 요구를 무시하므로 모든 세대들이 아담의 본을 따르지 않도록 경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일 시험이 더 큰 일에 관한 것이었다면 인간들은 그들이 보다 적은 일에 있어서 불순종의 죄를 변명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가장 경미한 불순종이 문자 그대로 죄라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 주시려고 최소한의 것으로 아담을 시험하셨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율법에 순복하도록 만드셨으며 외적으로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나 가장 중대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모든 것이 그들의 특성에 맞게 율법에 지배를 받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어느 것도 무분별하게 잊혀지거나 내버려 두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사고력(思考力)과 양심이 부여된 인간에게 그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이 주어졌다. 인간은 순종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 그는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두려운 결과를 거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율법과 일치하게 삶으로 순종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 - 영문시조, 1879.1.23.

5.

가. 가? 15:13.

가? 15:1.

“천사들은 그들의 사령관의 발 앞에 부복하여 그들이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천사의 생명은 죄의 빛을 갚을 수 없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 만 인간을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그러나 천사들은 구속의 경륜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히 2:9, 1:14)을 받은 자가 되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 그분의 능력은 그들의 능력에 못 미칠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분께서 고통당하실 때 그분께 수종들고 그분의 힘을 복돋워 드리고 위로할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부리는 영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은혜의 백성들을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그들의 주위를 두르는 어둠으로부터 보호할 것이었다.” - 부조와 선지자, 64, 65.

가?

3:14, 15; 16:20.

“신성께서는 인류를 위한 동정에 격동되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 자신을 주셨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12.5.2.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深淵)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 부조와 선지자, 63.

“아담은 죄인을 위하여 이런 대속물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경탄했다.” - 영문시조, 1893.2.20.

7 : 00

1.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늘의 신임장이었는가?
2. 무엇이 “평화의 의논”이었는가?
3. 왜 아담은 시험을 받았는가? 왜 우리 각 사람은 시험을 받는가?
4. 낙원에서 시험이 실제적으로 왜 적은 것이었는지를 설명하라.
그와 같이 우리의 매일의 시험은 왜 적은 것인가?
5. 이 위기에서의 온 하늘의 대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동함을 받을 수 있는가?

“ 가 가
가 ” (14:6).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증보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율법의 권위와 신성성을 옹호하시도록 그리스도의 손에 세상을 맡기셨다.” -부조와 선지자, 366.

참조할 연구교재: 부조와 선지자, 71-79.
성경주석[E.G. 화이트] 7권, 931.

4월 15일

1.

가. 가? 12:3; 22:18; 28:14; 3:8, 16.

“구주의 강림뿐 아니라 타락과 구원의 약속 이후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회복하게 하’ (고후 5:19)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족장 시대 뿐 아니라 유대 국가 시대에도 희생 제도의 기초요 중심이셨다. 우리의 첫 조상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교통이 없었다... 하늘과 타락한 족속 사이의 모든 교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구속을 약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 족장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분도 그분이셨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세는 다 복음을 이해하였다. 저들은 인간의 대치물이시요 보증인이신 분을 통해 구원을 바라보았다. 이 고대의 성인들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있던 구주와 교제하였고 그들 중에 몇 명은 그리스도와 하늘 천사들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부조와 선지자, 366.

가? 61:1; 4:18, 21.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전파되었던 복음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는데 이는 그들의 믿음이 오실 구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문시조, 1879.8.7.

2. 가

가.

가?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히 11:4)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임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 부조와 선지자, 72

. 가

가?

4:3, 5.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 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의 봉헌물(奉獻物)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륜을 끝이끝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 죄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호의의 표시로 자기의 제물을 드렸으며,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려고 기대하였다.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버렸다.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한 이 형제는 같았다. 둘 다 죄인이었으며, 둘 다 존경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시인하였다. 외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점까지는 같았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는 둘 사이의 차이는 컸다.” - 부조와 선지자, 72.

3.

가. 가

가?

가? 3:4-9.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증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 아래 있다.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놓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데도 없다.” - 부조와 선지자, 72, 73.

가

가? 3:7; 11().

가?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즉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 하며,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속죄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가인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인류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단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 부조와 선지자, 73.

4.

가.

가? 24:7; 24:19-21; 3:15-17; 4:2.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 24:7)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엄청난 위엄 중에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산 앞에서 무서워 떨었다. 그리고도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새긴 우상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었다.” -부조와 선지자, 371, 372.

가? 31:31-34; 8:8-12.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부조와 선지자, 372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피해 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욥 14:4).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 8:7).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意志力)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分限)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도적 단정을 만들어 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動機)를 깨끗케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18.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실물교훈, 312.

5.

가.

가? 14:6; 4:12.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 고리이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므로 말미암는 당신의 개인적인 증보를 약속하셨다.” - 성경주석 [E.G. 화이트] 6권, 1078.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 부조와 선지자, 372.

가? 1:15; 1:4-11.

“예수께서는... 인간을 만나시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신 자신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는 인간의 불행과 고뇌의 아주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인간을 그 있는 곳에서 만나시고 타락으로 얼룩지고 악으로 부패되었으며 배교로 사단과 연합된 인간을 끌어올리시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셨다.” -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199.

7:06

1. 구원의 계획이 왜 “복음”으로 언급되는가?
2. 아벨이 “새” 언약아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3. 무엇이 오늘날 우리를 “가인” 대신에 “아벨”이 되도록 만들 것인가?
4. 우리의 신앙경험이 참으로 새 언약에 부합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5. 이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 가 가
가 (1:14).

“예수는 하늘의 사령관이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으나 그는 몸을 낮추사 그의 왕관을 벗으시고, 그의 왕복을 벗으셨으며, 그의 신성애다 인성의 옷을 입으셨다.” - 성경주석[E.G. 화잇] 5권, 1130, 1131.

참조할 연구교재: 시대의 소망, 19-26.
성경주석[E.G. 화잇] 7권, 903-905.

4월 22일

1.

가. 가? 5:2; 8:58;
17:5.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면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에 관해서 언급된 말씀들은 매우 결정적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최고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지요, 영원히 하나님이다.” - 성경주석[E.G. 화잇] 5권 1126.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재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신 때는 결코 없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 - 영문시조, 1900.8.29.

가? 43:1; 1:29.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다. 그가 죄 없는 그의 귀한 생명을 주사 영원한 파멸에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서게 하려 하심이다” - 성경주석[E.G. 화잇] 7권, 914.

2.

가.

가?

9:6; 1:22, 23; 2:5-11.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잠시동안 그가 입으신 인성으로 가리워졌지만 그가 사람이 되셨을 때도 하나님이지기를 그친 것이 아니었다. 인성이 신성을 대신하신 것이 아니었고 신성도 인성을 대신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비밀이다.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었지만 그 양성은 확연히 구별되는 개별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비록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그는 삼위 하나님 중의 한 분이셨다. 그가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의 신성은 그대로 있었다. 예수께서 비록 슬픔과 고난과 도덕적인 더러움에 둘러싸여 있고 하늘의 율례를 위탁받은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절을 당하였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에 관하여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의 지상 사업이 끝났을 때 그는 신성의 영광을 다시 한번 취할 준비가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시며 천사들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몸을 굽히사 이 세상에 오셔서 비천하고 궁핍한 생애를 사시고 슬픔의 사람, 슬픔을 아는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신성의 인은 그의 인성 위에 있었다.” -성경주석[E.G. 화잇] 5권, 1129.

가? 2:22; 14:30().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그분은 제2의 아담이다. 첫째 아담은 죄의 오점이 없는 순결하고 죄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셨다. 그는 인성을 친히 입으셨고, 모든 점에 있어서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 속에는 단 한 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타락의 오점이나 성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분이 죄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손톱만큼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거룩한 자”라 일컬음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는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신비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지금까지도 신비요, 앞으로도 신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성경주석[E.G. 화잇] 5권, 1128, 1129.

3.

가.

가? 1:14; 14:7 - 10.

“구주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그분의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었는가에 관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심히 갈망하셨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인류를 향상시키시고자 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바 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시거나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의 완전한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 *시대의 소망*, 664.

. 가 (3:16)

가 가? 1:12, 13.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연합되어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 이 연합 속에서 우리 타락한 인류는 소망을 발견한다.” - *성경주석 [E.G. 화잇]* 5권, 1130.

. 가? 8:29.

“예수께서 인성을 입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구주께서 생애하신 순결하고 고결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 - *교회증언* 8권, 289.

“그리스도의 왕국은 허식적인 과장이나 세속적 찬조(贊助)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이 인간 속에 심어질 때 건설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 1:12, 13). 바로 여기에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역사할 수 있는 유일의 능력이 있다. 또한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다.” - *복음전도*, 531.

4.

가. 가 가?
14:15 - 18, 21, 23; 4:12.

“사람은 영생을 위한 이 큰 싸움에서 한 몫을 할당받고 있다. 그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해야 한다.” -교회증언 8권, 65.

. 가
가? 2:16 - 18; 5:2; 4:13.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어 있었고, 이 능력 안에서 그는 사단이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의 영혼은 조금도 죄로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운 품성을 받아들이는 모든 아담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신다.” -성경주석[E.G. 화잇] 7권, 927.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연합하게 될 때에 어떠한 완전한 인성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모본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동정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위대성의 새로운 국면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머리로서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킨 의를 드러낸 거룩한 정부의 원리 가운데 있는 교훈들을 인간에게 가르치셨다.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키는 일에 있어서 죄와의 어떤 타협도 없었으며 공의의 어떤 주장도 무시되지 않았다.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서 각기 지정된 위치가 있는데 자비는 그 자체의 온화하고 관대한 기질을 소멸함이 없이, 또는 그 자체의 동정적인 특성을 상실함이 없이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죄인을 벌하는데 그 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의는 그 자체의 성실성을 범하지 않고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는 일에 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60, 261.

“자신감이 없는 자는 자기를 신뢰할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고자 염려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서 무익한 존재가 되었을 뻔한 사람들이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 256.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시대의 소망, 671.

5.

가.

가? 5:39.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를 등한히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이 그리고 면밀히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훈계 곧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하신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므로, 이 성경 연구는 학생들로 거룩하신 모본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그 모본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주 그리고 면밀히 관찰하여야만 한다. 구주의 일생을 잘 알게 될 때에,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성품의 결점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일대 변화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위대한 모본을 닮기를 열망하면서 계속 연구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과 정신을 이해하게 되며, 바라봄으로써 변화되는 것이다.” - 안식일 학교사업에 관한 권면, 17.

가? 12:2;

가

가? 3:20.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으로 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를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으며,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들을 말끔히 씻어낸다. 악한 쪽으로 치우친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돌이킨다. 나쁜 성벽들과 감정들은 변하여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들과 성화된 감정이라는 열매가 열린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 성경주석[E.G. 화이트] 6권, 1080.

7:12

1.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관하여 무엇이 나타났는가?
2. 성육신하신 후의 그리스도의 특성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3. 무슨 조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가?
4. 오늘날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어디서 보여질 수 있는가?
5. 우리는 어떻게 변화함을 받아야 하는가?



부룬디는 중부 아프리카의 동쪽, 적도 남쪽에 있는 나라로서 정식명칭은 부룬디 공화국(Republic of Burundi)이며 북쪽은 르완다, 동쪽과 남쪽은 탄자니아, 서쪽은 자이르에 접하고, 남서쪽은 탕가니카호(湖)가 국경을 이룬다. 이 나라는 아슬아슬한 산맥과 부유한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자원이 적고 경제적 발전이 미미한 땅에 인구증가율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에 벨기에의 식민지가 되었던 부룬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심한 싸움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국내 총생산 지표에 의하면 부룬디는 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이다. 2005년도 국내 총생산은 미국 화폐로 106달러였다. 2002년도에 인구의 68%가 빈곤층으로 이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세계 식량계획에 의하면 5세 이하의 어린이의 56.8%가 고질적인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다.

불신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진리는 이 나라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의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교인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총 인구에 비례하여 세계에서 개혁운동 신자들의 수효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이곳이다.

이처럼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부룬디 대회에서 사업을 관할하고 새로운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센터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곳은 이 나라의 수도이지만 우리는 지금 예배를 위한 집과 장비를 세를 내어 사용하고 있다. 이 나라 전체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으나 우리의 교회 건물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긴급한 요구가 되고 있다.

이 안식일에 우리는 세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부룬디에 예배를 위한 중심 건물이 세워지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있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도움으로 "현대진리"가 이 나라 전체에 힘 있게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부룬디 대회의 형제자매들로부터-

가

“ (19:10).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자비를 통하여 죄인이 거룩한 은총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화목하도록 사람들에게 매일 탄원하고 계시다.” -가령 뽑은 기별 1권, 178.

참조할 연구교재: 성경주석[E.G. 화이트] 7권, 926, 927.
산상보훈, 149-152.

4월 29일

1.

가. 가? 2:17 ().

“[하늘의 지존자께서는] 너무도 순결하시고 너무도 공의로우셔서 죄를 보실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를 그분으로부터 추방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그분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막 2:17)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탄원도 없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탄원하면서 멸망하는 영혼들로 있는 그대로 주께 나오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252.

. , 가?
1:21; 1:5 ().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분께서는 인간이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한지를 묻지 않으신다. 생명과 영광의 주께서는 인간을 불순종의 결과에서 구원해 내기 위하여 높은 사령관의 자리를 떠나시고 슬픔의 사람, 질고를 이는 자가 되셔서, 치욕과 죽음을 당하실 때 당신의 편의와 즐거움을 고려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떠나도록 구원하고자 돌아가셨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며 자아를 부정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길의 잘못을 버려야 한다.” -교회증언 4권, 250, 251.

2. 가

가.

가? 55:6, 7; 24:47.

“믿음으로 그 신자는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그가 착한 마음을 타고 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양자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보증인이시요, 대속주께서 그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이다.” - 성경주석[E.G. 화잇] 6권, 1070.

“하나님께서서는 유한(有限)한 사람이 피차 대우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접하지 않으신다. 그의 생각은 자비와 사랑과 지극한 긍휼의 생각이시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가 네 허물을 뻑뻑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사 55:7, 44:22)고 하신다.” - 정로의 계단, 53.

가?

1:9.

가

가? 3:12-

14; 5:14; 8:11.

“모든 악을 피하라. 흔한 죄들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대의 도덕적 감각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의 내면의 감화를 소멸시킬 것이다. 생각의 특징은 그 인상을 영혼에게 남기며, 모든 저속한 대화는 마음을 오염시킨다. 모든 악한 일은 그것을 범하는 자들을 파멸시킨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고 또한 용서하실 것이지만, 용서받았을지라도 그 영혼에게는 상처가 남는다. 손상되지 않은 마음에서는 가능한 고상한 생각을 할 능력이 파괴된다. 온 세월을 통하여 영혼은 그 상처들을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역사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자.” -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195.

“품성이 완전에게 이르는 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써이다.” - 성경주석[E.G. 화잇] 4권, 1137.

3.

가. 가

가? 2:15; 1:13.

가?

“사단은 환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항상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그릇된 길을 고치라는 권고와 책망은 어떤 것이나 다 흠을 뜯는 것, 속박하는 것,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 행동할 자유를 가질 수가 없게 된다. 주께서 크신 자비로 그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보냈지만 그들은 책망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반역한 그 원수와 같이 그들은 듣기를 싫어한다.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과오를 시정하지 않고, 자기들은 오용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참소자들이 된다.

지금은 시련과 시험의 때이다. 사울같이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사울이 당한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며 명예도 잃고 끝에 가서는 영혼도 잃어버릴 것이다.” -성경주석[E. G. 화이트] 3권, 1163, 1164.

가? 3:24 - 26; 5:1.

가? 7:9.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을 말하면서 회심할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그는 정죄받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계명이 이르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양심을 깨우칠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보되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 받은 죄인으로 보게 되었다.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고 바울이었다.” -성경주석[E. G. 화이트] 6권, 1076.

4.

가. 가 가? 3:31.

. 가 가? 2:23-27;
8:7; 1:9, 10.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이며, 사람의 품성 속에 있는 결점들을 보여 준다. 그러나 불의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그들의 도덕적 결함을 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 충실한 거울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욕의 마음을 치는 전쟁을 시작하는 대신에 이 참되고 충실한 거울을 치는 전쟁을 벌인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그들이 기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그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 결점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성경주석 E.G. 화이트 6권, 1077.

. 가? 3:23; 6:23.

. 가? 3:18.
가? 16:13; 17:17, 19.

. 가? 5:23.

“하나님께서서는 능력으로 옷 입고 계시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취하셔서, 죽은 자로부터 예수님을 일으키신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품성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여 반역하는 상태로부터 순종하는 자녀, 하늘 왕국의 신민으로 변화된다. 그들은 진리를 통하여 거듭나고 중생하며 거룩하게 된다.”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332.

5.

가.

가? 8:14-17. 가
 가? 6:16-18; 1:4.

“ ”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하고, 마음의 악한 상상을 대항해서 열렬하고도 지속적인 영혼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굳건하게 저항해야 한다. 그대를 지키사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더러운 것에 그대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속한 것들을 솔직하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 - 성경주석 [E.G. 화잇] 3권, 1145.

가? 1:10,

11; 3:16, 20.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써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은 영광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 없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실물교훈, 96, 97.

7 : 18

1. 무엇이 복음의 최대의 목적인가?
2. 하나님의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두 가지 유익한 점을 들라.
3. 사도 바울의 경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실제적인 예가 되는가?
4.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관련시켜서 설명해야 하는가?
5. 왜 복음의 기별이 그렇게 심오한 가치가 있는가?

“ 가

”(1:16).

“복음은 그대로 살아지고 실천되며 실제적인 생애에 짜여질 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의 나의 생애, 224.

참조할 연구교재: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196-200.
사도행적, 557-567.

5월 6일

1.

가.

가? 3:4; 4:17.

가? 7:14 - 24; 8:34, 36; 15:5.

“도덕적인 능력들은 죄에 사로잡혀 사단의 함정 아래 놓인다. 영혼은 사단의 유혹의 장난거리가 된다. 그러므로 어떤 강한 팔이 그를 구출해 내기 위하여 뻗치지 않는 한 사람은 반역의 괴수가 길을 이끄는 데로 간다.” -교회증언 7권, 42.

. 가? 4:15, 16;
7:25; 12:2.

“수많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위해 주님을 찾는 대신에 육체로 그 권력을 삼기 때문에 연약한 신앙 체험을 누리고 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381.

“우리의 믿음은 휘장을 꿰뚫고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만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그대를 위해서 바라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대 자신의 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성경주석 [E.G. 화잇] 7권, 930.

2.

가. 가

가? 2:8; 2:4; 5:1, 2.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이 이끄심에 응할 때에 그가 회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이끌리게 되는 것은 그분의 권능과 공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통회케 하시는 은혜는 주님께로 말미암아 이르는 것이며 의롭다 하심[칭의]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90, 391.

. 가

가? 5:18, 19; 5:21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이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입혀진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의심하지 않게 된다.” -성경주석[E.G. 화이트] 6권, 1071.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다.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순종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그를 마치 의인인 것처럼 취급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신다.” -성경주석[E.G. 화이트] 6권, 1073.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을 높일 마음이 더욱 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이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롬 7:18; 갈 6:14).” -사도행적, 561.

3.

가.

가? 3:7, 8; 5:17; 7:1.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요 폭군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506.

가? 8:1,

5, 13; 5:16; 5:8-11.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품성의 향기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는 가운데 결심하고 사고력을 행사하며 의지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는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봄으로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영적 달성에 있어서 전진과 진보를 의미한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고 선언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 ‘주의 길로’ 행한다는 것,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 ‘진리로 행한다’는 것,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 ‘새 생명으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200.

“그리스도를 배우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귀한 기회와 거룩한 감화를 감사하게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행해질 거룩한 봉사에 참여하기에는 부적당하다. 그들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되지 못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태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도 다리를 놓을 수 없는 넓은 간격을 만들었다. 저희와 의인들 사이에는 몹시 큰 골짜기가 놓여 있다.” - *실물교훈*, 271.

4.

가. 가? 1:9; 6:1, 2, 7, 22.

“칭의는 한 영혼을 성화케 하려고 파멸에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케 되어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 -성경주석[E.G. 화잇] 7권, 908.

. 가 가? 6:9-11; 3:8-10; 4:13.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것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게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469, 470.

. 가? 1:21-23,
29.

. 가? 1:16; 3:16-20.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에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사도행적, 482.

5.

가.

2:11 - 14; 3:5. 가

가?

가? 13:33.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 실물교훈, 97.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해야 한다. 그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예의와 부드러운 관계 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친절한 말과 격려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생애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되어 이 향기는 거룩한 향내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사랑은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는 일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하여 그의 용모는 변하고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얼굴에서 비쳐나오게 될 것이다. 진리가 그들의 용모에 기록되고 하늘의 평화가 그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끊임없는 온유함이 나타날 것이다.” - 실물교훈, 102.

가?

가? 17:20; 20.

“하늘 천사들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실에까지 완전함을 나타낼 그러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다.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네 오른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할 수 있는 것들이다.” - 실물교훈, 332, 333.

7 : 24

1. 의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연약함을 정복할 수 있는가?
2. 칭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3. 성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4. 구속의 경륜에서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협력을 설명하라.
5. 무슨 증상이 그리스도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의 누룩의 활동을 나타내는가?

“ 가
 (10:38).

“육천년 동안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왔다. 육천년 동안 사단의 분노의 홍수와 태풍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쳤으나 그러나 그것은 요동하지 않고 서 있다.” - *시대의 소망*, 413.

참조할 연구교재: *시대의 소망*, 315-320.
산상보훈, 141-144.

5월 13일

1.
 가. 가? 11:1; 4:18. 가? 10:17.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축복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 나의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다. 이렇게 해서 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그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 *성경주석* [E.G. 화잇] 6권, 1073.

가? 6:53, 63; 17:5; 2:2. (12:3)

“용기, 불굴의 인내, 믿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조건 신뢰 하는 것 등은 순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 하늘의 덕성들은 다년간의 경험에서 얻어진다.” - *교회증언* 5권, 213.

“그대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면 그대는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대가 이같이 살아있는 믿음을 행사할 때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한 남녀로 자라날 것이다.” - *성경주석* [E.G. 화잇] 5권, 1121, 1122.

2.

가. 가? 3:15 - 17;
1:22, 23.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품성과 함께 짜여져야 한다. 살아 있는 유일한 믿음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동화되어 생명의 한 부분이 되고 생애와 행동의 동기가 되게 하는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과 일치되게 변화되고, 그 거룩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은 그분의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5권, 576.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0.

가? 2:13; 2:15; 17:17.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7)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실물교훈, 100.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리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떨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시대의 소망, 391.

3. 가, 가?

가. 가? 1:6, 7; 1:16; 11:6.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보할 아무런 계단도 밟고 있지 않다. 그들이 모든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산 체험이 없다. 그들은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의 헌신은 형식적이며 속이 비어있으며 그들의 경건에 깊이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자유를 주며 열심히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명철함을 준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산 믿음으로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 생애 속에 하늘 빛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의 샘물을 마시며 다른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 주는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취해야 한다.” -리뷰 앤드 해럴드, 1910.9.22.

가? 5:6 (13:9, 10); 2:14 - 17.

“사도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제시할 때 몇가지 위험이 있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가 보여주려고 애쓴 것은 순수한 믿음은 이에 상응하는 행함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다. 순수한 믿음은 신자들 속에 순수한 행함을 낳게 한다. 믿음과 순종은 건전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다. 성경 말씀에는 마귀들도 믿고 떠한다고 하셨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영혼을 순결케 하지도 못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의 성질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신 바 된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어둠을 밝혀 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 어둠이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을 차단하고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선행을 많이 낳아야 한다. 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의무와 희생은 매우 큰 상을 받게 한다. 의무를 행하는 바로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축복을 내리신다.” -성경주석[E.G. 화잇] 7권, 936.

4.

가.

가? 7:2, 3.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바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도록 요청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는 그들은 크신 교사되신 예수를 잘 알고 있으므로 예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라 생각하였다.” - *시대의 소망*, 315, 316.

()
가? 7:4-10.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 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하셨’ (딤후 3:5)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기 의외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 *시대의 소망*, 316, 317.

5.

가.
9; 4:6, 7.

가? 1:7-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에 그는 사람 자신의 선택 외에는 아무런 능력으로도 능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써 당신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 사단은 항상 이 줄을 끊도록—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끊도록—여러가지 유혹들로써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서 애쓰며 기도할 필요가 있나니 그리하여 어떠한 유혹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주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가 있는 연고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항상 그리스도만 주목하면 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는 그를 항상 바라보는 가운데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8).” —정로의 계단, 72.

가

가? 11:29-35; 5:4.

“믿음이 작용하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낸다.” —성경주석 [E.G. 화잇] 6권, 1074.

“오직 믿음만이 우리들을 하늘의 능력과 연결케 하며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을 위하여 능력을 얻게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10.9.22.

7 : 29

1. 무엇이 믿음이며 그것은 어떻게 계발되는가?
2.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연약함의 결과인가?
3. 무엇이 산 믿음을 특징짓는가?
4. 로마 백부장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5.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실례들을 말하라.

“ ”

“ 가 (-KJV) 가
 (1:12).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바울의 시대에도,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영문시조, 1883.6.21.

참조할 연구교재: 시대의 소망, 632-636.
 각 시대의 대쟁투, 355-374.

5월 20일

1. :

가. 가 [6:5; 19:18] 가?
 22:36 - 40. 가?
 7:16,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의 말은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과 완전히 조화되는 말이다. 나는 새로운 교리를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배경 가운데 놓여진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성경주석[E.G. 화잇] 5권, 1136.

. 가 “ ” 가? 1:1 - 3;
 1:12, 15, 16. 가?
 17:17 - 20.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그분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의 잠자고 있던 감각들은 일깨워졌다. 이 진리들의 의미가 계시처럼 그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올랐으며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가 터전을 잡았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생애의 놀라운 경험들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사도행적, 520.

2.

가.

가? 3:3-6, 9; 3:16; 16:25, 26.

“여러 시대 동안 숨겨져 왔던 신비들이 바울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하여, 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취급하시는 일에 관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간직하였다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설교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방인들에게도 빛이 주어져야 하였다. 이것은 여러 시대에 걸쳐 숨겨져 온 비밀이다.” -성경주석[E.G. 화잇] 6권, 1107.

. () 가?
24:14.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고대해 오셨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필요되는 분야에 들어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사도행적, 111.

. 가? 22:10, 11.

“복음 전파의 시기는 은혜의 시기의 끝이다.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재심은 없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이며,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는 그가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 -성경주석[E.G. 화잇] 7권, 971, 972.

3.

가. 가 가? 24:32 - 39.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 *시대의 소망*, 632.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때의 세상의 형편을 지적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천년기간이 모든 사람이 내세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현세적 천년기라는 견해를 제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에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시대의 소망*, 633.

가? 6:5.

“노아의 때의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5). 홍수 이전 세상의 주민들은 여호와를 떠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상상과 악한 생각을 따라 행하였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는바 오늘날 세상도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천년기적 영광으로 돋보이는 징조들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들의 노름, 경마, 도박, 방탕, 음란한 행위, 억제할 수 없는 정욕들은 이 세상을 신속하게 난폭한 행위로 가득 채우고 있다.” - *시대의 소망*, 63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대로 준수해야 할 법칙들을 주셨건만 오늘날은 노아의 때처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며 사람들은 제 마음의 욕구와 계획에 따라 행함으로 스스로의 멸망을 초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식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천부(天賦)의 인간다움을 지니고 굳게 서기를 원하신다.” - *절제*, 281.

4. 가

가. “ ” 가?
14:6.

“재림이 가까웠다는 선포와 함께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예언되어 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6, 7).

한 천사가 이와 같은 경고를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그 의미가 깊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사자의 순결과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그 기별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업의 고상한 특성과 그 사업에 수반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또 한 천사가 공중에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은 이 운동의 신속성과 세계적인 범위를 분명히 알려준다.” -각 시대의 대쟁투, 355.

가? 3:2-4; 19:7.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 3:15)고 말씀하셨을 때에 선포하신 바 동일한 복음이다. 바로 여기에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려뽑은 기별 2권, 106.

파나마는 남·북 아메리카를 잇는 파나마 지협(地峽)에 있는 나라로서 정식국명은 파나마 공화국(Republica de Panama)이다.

원래 개혁기별은 이 나라 인구의 약 절반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수도인 파나마 시와 그 주변에 집중되어 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기별은 이 나라의 내륙 쪽으로 전파되고 있다.

종교분포는 로마 가톨릭 교도가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있음으로 파나마의 국교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개신교회들은 전체 인구의 14%를 점하고 있으며 기타 이슬람교, 불교, 바하이교, 유교, 그리고 힌두교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파나마의 국가 경제가 특히 운하 지역에 편중되는 무역거래에 의존하므로 전 세계로부터 온 사람들이 파나마에 정착해 왔다. 중국과 인도와 유대인들과 같은 중대한 공동 집단들이 사회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사실 중국은 전체 인구의 5%를 점하고 있으며 유대인 사회도 라틴 아메리카의 3대의 대규모 공동사회계층에 포함되고 있다. 이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축복을 받아왔다.

문서전도사업이 크게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중남미 연합회의의 한 부분으로서] 파나마 대회는 교회를 건축하는 투자 사업을 완성하는데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왔으며 또한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계속 전진할 것이나 여러분의 도움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를 구하며 아울러 후한 연금으로 이곳 우리의 사업을 도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다.

- 파나마 대회의 형제자매들로부터 -



“ ”

“ 가 (12:28).

“경건한 두려움, 겸비, 그리고 온유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나타내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크게 필요 되는 것이다.” -교회증언 4권, 259.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5권, 491-500.
교회증언 8권, 284-286.

5월 27일

1.

가. 가 가 가?
12:13. 가?
가? 3:1, 2, 5.

“헌신적인 사랑이 깃들인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에 대하여 총명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창조주를 위한 경외심이 점차로 결핍되어 가고 있으며 주님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에 대하여 점점 냉담해 가는 상태를 엿볼 수 있다.” -가려뽑은 기별 2권, 315.

3:16. 가? 3:16;
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은 그분의 무한하신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깨달을 때에 고취된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이같은 느낌으로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 한다.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리고 경외심이 행동과 태도에 나타날 때에 그것을 고취시키는 생각 또한 깊어질 것이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 (시 111:9)다 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한다. 천사들도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우는데 하물며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가 여호와의 성호를 말할 때에 얼마나 경의를 표해야 하겠는가!” -선지자와 왕, 48, 49.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버릴 때에 오래지 않아 정절과 성실에서 떠나게 된다.” -부조와 선지자, 557.

2. 가 가

가.

가? 1:15-17.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애굽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남자 아이를 살렸다. 산파들은 감히 히브리 사람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저희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번영하게 하셨다.” -영적 선물 3권, 179, 180.

18:3, 4, 13.

가? 1:1, 8;

“부모들은 굳은 신념과 헌신의 교훈을 우스 사람으로부터 배우면 좋을 것이다. 읍은 그의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친절하고, 사려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열렬히 노력하였다. 그의 아들과 딸들이 잔치를 하는 중에 혹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나 않았나 하고 그는 마음이 조마조마 하였다. 가정의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그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는 죄의 공격적인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혹시나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였다.” -성경주석[E.G. 화이트] 3권, 1140.

“이스라엘의 배도의 기간에 오바다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의 주인은 왕이었지만 왕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선지자와 왕, 138.

가? 10:1-6.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생애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하였다. 그는 가정생활과 공무에 있어서 여호와께 충실하였다...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사도행적, 133.

3.

가.

가? 34:7, 9;

85:9; 1:50.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은 사람의 권세나 사단의 증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진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높이신 신임을 배반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궁핍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신다. 사람이 한숨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 *시대의소망*, 356.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암흑의 왕의 부단한 악의와 기만력의 습격을 받고 악의 세력과 싸울지라도 하늘의 천사들의 끊임없는 보호가 보증되어 있다. 필요 없이 그런 보증이 주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보호의 약속을 하신 것은 그들이 강한 악의 세력과 대결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무수하게 많고, 굳세고, 지칠 줄 모르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의 악의와 세력을 깨닫지 못하거나 유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해질 수 없다.” - *각 시대의 대쟁투*, 513.

가? 46:1-3; 91:1, 5, 6.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그의 입술에 담으시고 아버지께 나아가 말씀하신다. ‘나는 내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압니다’ 고 하신다. 그러면 그들을 보호하라는 명령이 천사들에게 내려진다. 두려운 시련의 날에도 그분은 ‘내 백성아 같지어다 네 밀실이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간 숨을지어다’ 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숨을 밀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한 장소에 있지 않다. 그들은 각각 다른 일행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지상의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집단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 다 각각 자기 혼자 힘으로 그 시험을 견디어야 한다.” - *경주석* [E.G. 화이트] 4권, 1143.

4.

가. 가 가? 3:15.

“[벧전 3:15 인용됨]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불신이나 우유부단함을 뜻하지 않고, 현명하지 못한 한 마디 말이 나오거나 감정이 흥분되어 우세해지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모든 점을 경계하는 것이다. 경건한 두려움, 겸비, 그리고 온유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나타내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크게 필요 되는 것이다.” -교회증언 4권, 258, 259.

가?

10:28.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그의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들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은 두려워 떠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피하게 함으로써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무서운 위협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고 그의 말씀 중에 단순히 기록해 두기 위해서 그토록 심한 심판을 선고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뜻하기 때문이다.” -성경주석(E.G. 화이트) 6권, 1100.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사단은 질책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시키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었다. 무서운 시련을 당한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질책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구주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때는 결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21)고 말씀하셨다. 진리로 인하여 신자가 세상 법정에서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자 곁에 서신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될 때에 구주께서는 그에게 저희가 목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임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요 16:33).” -사도행적, 85, 86.

5.

가.

가? 58:6-8.

가? 14:7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 성경주석[E.G. 화이트] 7권, 979.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36,

20:8-11; 31:16, 17.

가

가?

가? 2:2,

3.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 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 준다. 그리고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는 그분의 초청을 반복하고 있다.” - 시대의 소망, 289.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마음은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 하늘 조정에 서, 162.

7 : 39

1. 우리는 만연되고 있는 어떤 태도를 피하도록 주의해야 하는가?
2. 어떤 성경구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해서 배울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주를 경외함으로 무슨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4.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왜 증인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5.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우리를 안식일 계명어로 향하게 하는가?

“ ”

“

(14:7).

“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 다는 선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 준다.” -각 시대의 대쟁투, 435.

참조할 연구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467, 468.

각 시대의 대쟁투, 424-428.

6월 3일

1.

가. 가? 14:7; 5:10.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의 책들에 기록의 양(量)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한 번 입에서 나온 말, 한 번 나타낸 행위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다. 천사들은 선악간의 행위를 다 기록하여 둔다.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모두 행복과 불행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것들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느냐 정죄의 선고를 받느냐 하는 문제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6, 487.

가? 4:17, 18.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피야 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490.

2.

가. 가? 2:1, 2.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해 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 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84.

가 가? 2:4-6.

“오늘날 세상에는 두 계급의 사람들만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에도 단지 두 계급의 사람으로 구별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과 그 율법을 순종한 사람들이다.” - 실물교훈, 283.

가? 7:21-23.

“그리스도께서는 공공연한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시므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 실물교훈, 71.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죄인들이 한동안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섞여서 외형상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추수 때가 이르면 선한자와 악한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 때에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 실물교훈, 74.

3.

가.

가? 2:12; 3:19; 2:10 - 12.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있었다. 이 율법은 거룩한 존재자들의 상태에 적용되도록 제정되었으며 천사들까지도 이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의의 원칙들은 변치 않았다. 율법에서 단 한 가지도 폐한 것이 없으며 율법의 거룩한 교훈에서 단 한 가지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태초부터 이 율법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이 율법은 끊임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시편기자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하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 인줄을 알았나이다’ (시 119:152) 라고 말하였다.

천사들을 지배하며 가장 은밀한 사상과 욕망과 기질에 순결성을 요구하며 ‘영원 무궁’ (시 111:8)토록 존재할 이 율법으로 온 세상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범죄자들은 스스로 지존자께서는 알지 못하시고 전능자께서는 생각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저들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불원간 저들은 저희 행위에 대한 보상 곧 죄의 값인 사망을 받게 될 것이며 율법을 지킨 의로운 백성은 하늘 도성의 진주문을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앞에서 불멸의 생명과 기쁨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20.

가

12:47, 48.

가?

“빛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기준과 진리와 빛의 지식이 풍부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평가기준은 전혀 다르다. 어떤 단계의 의는 그리스도 교계 사람들이 행한 일일 때는 하나님께서 별로 만족히 여기시지 않지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행한 일일 때는 만족히 여기시고 받으신다. 그분은 많이 주시지 않은 곳에는 많이 요구하시지도 않으신다.” -성경주석 [E.G. 화이트] 5권, 1121.

“율법과 선지자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매개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에 유의하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저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증인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유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실물교훈, 265.

4.

가.

가?

19:16, 17.

“장차 심판날에 그대에게 물을 오직 한 가지 질문은 ‘너는 나의 계명을 좇아 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하찮은 문제들로 인하여 사소한 분쟁을 하며 언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는 상관이 없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분별 있는 사람 곧 청중을 가시밭으로 인도하여 그 곳에 버려두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죄의 속죄물로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위대한 진리이며, 이 진리 주위에 모든 다른 진리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갈바리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대들에게 자비와 재생과 구원과 구속의 위대한 큰 기념물을 소개하노니 곧 십자가 위에 들리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이것은 우리의 목사들이 행하는 모든 설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복음사역자, 31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통해서 율법을 언제나 거룩한 통일체로 제시하셨으며 모든 율법이 한 가지 원칙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계명은 지키고 다른 계명은 범해도 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실물교훈, 377, 378.

가

가? 10:25-28; 5:2, 3.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가 빛나는 세계에서 성도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백성인지 아닌지의 시험을 받고 있으며 그들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은, 만일 그들이 더 큰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쇠하지 않을 보화를 소유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 주는 품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행사되는 이기적인 원칙들은 천국에서 행해 질 원칙이 아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 23:8)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6.3.31.

“하늘에서는 아무도 자아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모두가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들 주위에 있는 하늘 존재의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새 땅에서 하늘의 교제를 즐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늘의 원칙으로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 -하늘 조정에서, 233.

5.

가. 가? 3:1;
가? 22:11 - 14.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는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홀연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등의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26.

가? 7:9 - 13.
가? 7:14; 12:36;
22:12.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 (눅 12:36)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27.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같’ (단 7:14; 계 21:2)은 당신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 앉’ (마 8:11; 눅 22:30)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 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27.

7 : 43

1. 현대진리를 믿는 자들은 왜 특별히 심판의 시기에 깨어있어야 하는가?
2. 무엇이 구원 받을 자들의 특징인가?
3. 왜 심판에서 오직 하나의 표준이 있는가?
4. 하늘에서의 우리의 삶을 위해 무슨 태도가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야 하는가?
5. 우리는 어떻게 혼인 예복의 비유를 이해해야 하는가?

“
43:25).

”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 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357.

참조할 연구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479-491.
교회증언 4권, 384-387.

6월 10일

1.

가.

가? 8:5.

가? 9:24; 8:1, 2.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당신의 중보사업의 축복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완전한 암흑 속에 묻혀 여전히 무익한 희생 제물과 그 밖의 제물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다. 모형과 그림자에 속한 봉사는 이미 끝났다.” -각 시대의 대쟁투, 430.

가

가? 8:14; 9:23.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계 22:12참조).” -각 시대의 대쟁투, 421, 422.

2.

가.

가?

33:13; 8:11 ().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경솔함과 농담과 경박한 행동으로 흔히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를 준다. 나는 이 같은 악이 우리의 대열에 편만해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하나님께 불쾌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천사는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심판하고 연약한 그대들의 생명의 줄을 끊어 버리심으로 심판을 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대들의 마음을 정돈하라. 그대들이 하나님과 즉시 화평의 관계를 이루지 않고 그대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으면서 무덤 속에 침실을 마련하게 된다면, 그대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지고, 그대들은 거짓된 도움 곧 가상적인 준비에 의존하게 되고, 그대들의 잘못을 너무 늦게 발견함으로써 건전한 기초 위에 세워진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133, 134.

가? 24:13; 3:5.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간하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온 빛이 언제나 필요하다. 만일 우리 멋대로 버려둔다면 우리는 매 발자국마다 더듬게 될 것이며 우리는 세상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자제하기를 고려할 것이며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후에 우리는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그의 뜻을 행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됨을 받게 될 자들은 다 용맹스럽게 주의 싸움을 싸울 것이다. 저들은 모든 시험과 악한 것들을 구별하여 이를 물리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목하심과 또한 저희에게 가장 엄격한 충절을 요구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저들은 충실한 파수꾼처럼 그 통로를 막음으로서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저희 속에 들어와서 저희 가운데서 죽이는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그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락을 더 사랑하며 거스리는 파도를 물리치고 나아가는 것보다 도리어 조수에 밀려 표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무리로 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정신과 감화를 받을지라도 여전히 순결하고 타락하지 않는 자들은 다 치열한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올 것이며 저들의 품성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할 것이다.” -오늘의 나의 생애, 321.

3.

가. _____ 가? (9:1, 2 4:5; 8:3, 4
).

“[계 4:5; 8:3 인용됨.] 여기에서 선지자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첫째 칸을 보도록 허락되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일곱 등불 켜진 것’과 향단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지상 성소에서 금등대와 향단으로 표시된 것들이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14, 415.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애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가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21.

. _____ 1844 _____ 가? 11:19. (9:3,
 4 _____) _____ 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 ... 더라’ (계 11:19). 이 언약궤는 성전의 둘째 칸, 곧 지성소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성막의 봉사에 있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열리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33.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 준다. 그것은 구주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세상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말해 준다.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35, 436.

4.

가.

가?

43:25.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 (계 20:12)을 것이다. 그 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 - 부조와 선지자, 357, 358.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 43:25)고 말씀하신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83.

가

가?

가? 3:19 - 21.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증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증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25.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서 계시며, 우리의 증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걸음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히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성경 주석 [E.G. 화잇] 7권, 933, 934.

5.

가.

14

가? 11:1.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남아 있게 될 때가 왔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 그분께서는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축정하고 계신다.” - 교회증언 7권, 219.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심판은 얼마동안 계속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라고 하신다. 그대가 그대의 사업차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척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가 가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척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미술가에 의해 얼굴이 반짝이는 판에 재생되듯이 그대의 말과 행동이 하늘 책에 사진으로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 성경주석 [E.G. 화잇] 7권, 972.

4:16.

가? 10:19 - 23;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 곧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 궁정에서 가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 성경주석 [E.G. 화잇] 5권, 1079.

7 : 46

1. “성소의 정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이 정결사업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3. 조사심판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얼마나 오래 계속될 것인가?
4. 심판의 시간의 엄숙성을 묘사하라.
5. 무엇이 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요한 감명을 주어야 하는가?

“ 가 (14:8).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83.

참조할 연구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381-390.
살아남는 이들, 364-368.

6월 17일

1.

가. 가? 14:8. 가?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Babel) 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고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81.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다.” - *초기문집*, 237.

가? 17:3-5.

“바벨론은 ‘음녀들 ... 의 어머니’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82, 383.

“많은 개신교회들은 로마교가 ‘땅의 임금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그 본을 따르고 있는데, 국교들은 나라의 정부와 손을 마주잡고, 그 밖의 다른 교파들은 세상의 총애를 받고자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바벨론, 곧 혼잡이라는 말은 그런 모든 단체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효의 교파로 나뉘어지고 각각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을 가진 그 여러 단체들에게 작용되기에 꼭 알맞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83.

2.

가. “ ” 가? 17:2() ; 19:2.

“바벨론에게 선고된 큰 죄는 그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죄이다.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의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는 세상과 짝하므로 그의 믿음은 타락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가장 명백한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침으로 세상에 부패한 감화를 미치고 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88.

가? 18:3; 4:4.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애정을 버리고 세속적 사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우므로 그리스도께 성실하지 못한 것은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간 죄는 이런 문구로 묘사되어 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81.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82.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종교 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와 멸망으로 인도한 그 욕망, 곧 불경건한 자들의 습관을 본받고 그들과 사귀고자 한 그 욕망 때문에 무너졌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83.

“사람들은 제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과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는 자들과의 차이가 별반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쓸 것이다. 제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단의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은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는 것발이나 표지가 지나치게 뚜렷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논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관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최선의 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것발을 내려 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아니다.” - 교회증언 6권, 144.

3.

가. 가? 7:25; 17:6.

“법왕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자 하였다. 우상 예배를 금지하는 둘째 계명은 율법에서 제하여 버리고,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제칠일 대신에 제일일의 준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고쳐 버렸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46.

“13세기에 법왕의 모든 도구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제도 즉 종교 재판소가 설립되었다. 흑암의 왕이 법왕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였다. 그들의 비밀회의에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악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다. 그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의 죄악적인 명령의 놀라운 것들을 기록하고 사람의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무서운 행위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였다. ‘큰 성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에 취’ 하였다. 여러 토막으로 잘리워진 수백만의 순교자들은 그 배교적 세력에 대하여 신원(伸冤)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법왕은 전세계의 독재 군주가 되었다. 왕들과 황제들은 로마 법왕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인류의 운명은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모두 그의 관리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백년 동안 로마교의 교리들은 광범위하게 그리고 절대적인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그 의식들은 엄숙히 거행되고, 그 축제일들은 널리 준수되었다. 승려들도 존경을 받고, 풍족하게 살게 되었다. 아마 이 때처럼 로마교가 위엄과 세력을 펼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59, 60.

가?

12:6, 13, 14; 13:7, 5. (14:34; 4:6) .

“여기에 기록된 ‘마흔 두 달 동안’ 혹은 ‘1260일’ (계 13:5; 12:6)이란 말은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교의 압박을 받을 기간을 나타낸다. 법왕권이 최상권을 쥐게 된 1260년은 기원전 538년에 시작되어 1798년 마치게 된다. 그 때에 프랑스 군대가 로마에 침입하여 법왕을 사로잡았는데, 그는 유배 중에 죽었다. 얼마 후에 새 법왕이 선출되었으나 로마의 교권(敎權)은 전과 같은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 각 시대의 대쟁투, 266.

4.

가.

가? 18:2; 3:13.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 할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살후 2:9-11)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389, 390.

“이처럼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 다른 천사에 의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또다시 이 세상에 전하여진 바 되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기별들이 하나로 혼합되어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사업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파하는 일이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암 4:12)는 것이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경고이다. 우리들은 모든 무거운 짐들과 우리들을 쉽사리 엄습하는 죄를 벗어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가려뽑은 기별 2권, 116.

가? 18:4.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 가운데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써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살후 2:12)들이 속임을 받아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어 있을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내 백성이 거기서 나’ (계 18:4)오라는 호소에 유의하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0.

5.

가. 가? 24:24 - 26; 13:13, 14.

“그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593.

“ 가 ... ”
가? 24:23.
가? 18:8.

“사단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그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듯 그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성경주석 [E.G. 화잇] 6권, 1105, 1106.

“사람들은 기만을 당할 것이며, [사단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신으로 섬길 것이다. 그러나 전능자께서 개입하실 것이며, 연합하여 사단을 높이는 배도한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선고가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계 18:8).” -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62.

7 : 48

1.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우리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3. 바벨론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4. 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반복되는가?
5. 바벨론의 권세와 영향력이 거의 압도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명심해야 하는가?

“

”(14:9, 10).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초기문집, 254.

참조할 연구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440-450.

각 시대의 대쟁투, 578-581.

6월 24일

1.

가. 가? 14:9, 10.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대조되는 다른 무리들을 지적하여 그들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엄숙하고 무섭게 경고한다. [계 14:9, 10 인용됨].” -각 시대의 대쟁투, 438.

가? 13:1-4, 8.

“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두 종류로 나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50.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가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적은 무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의 말씀 안에 나타난 진리를 위하여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사도행적, 590.

2.

가. 가
가? 13:11, 12, 14.

“새끼양과 같은 빨과 용과 같이 말하는 소리는 그 표상하는 나라가 공언하는 바와 실제적 행동이 놀라울 만큼 모순됨을 가리킨다.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일찍이 국시(國是)로 공포한 자유와 평화의 원칙이 허위임을 증명한다. ‘용처럼 말’ 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쓴다는 예언은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낸 편협한 정신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명백히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빨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는 자라’고 한 말은 이 나라가 법왕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어떤 도를 강요하는 일에 그 권위를 행사할 것을 나타낸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42.

가? 13:13.

가?

9:5, 6.

“나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현대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성경에 기초하여 주장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악령들이 죽은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는 너의 친구라.’ 또는 나는 너의 ‘친척이다’ 라고 말하며 안식일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오류들을 전할 것인데 그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정을 받기 위하여 온갖 능력을 행사할 것이며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할 것이다.” - 초기문집, 87.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위대한 의료 선교사인 체 하며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것이다.” - 의료봉사, 87, 88.

3.

가.

가? 13:16.

가?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은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칠일 안식일의 준수에서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 31:12, 13). 여기에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로,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이 표는 교황의 권위와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과를 구분한다.” - *교회증언* 8권, 117.

가 가?

13:17, 15.

“세상에서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무섭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계 13:16) 거짓 안식일을 지키므로써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이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해준다.” - *각 시대의 대쟁투*, 604.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사단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것이다. 성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초인간적 노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교도와 신교도들은 연합하게 된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그들은 과료와 투옥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유혹의 수단으로 훌륭한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자들은 보수와 특권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단호한 대답은 일찍이 루터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607.

4. 가

가.

가? 14:10, 11.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은 무서운 죄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죄악에 관한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찌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어야 한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49, 450.

[3:17]

가? 16:1, 2.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여기 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땅에 기근이 이르렀는데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단 한마디의 인정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인가! 그렇다.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갈증과 굶주림으로 허덕여야만 한다. 날마다 그들은 구원을 등한시해 왔고 하늘의 보물과 보증보다 지상의 부와 쾌락을 더 높이 평가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였으며 성도들을 조롱하였다. 더러운 자들은 영원토록 더러울 것이다.

악인들은 재앙을 받게 될 때 몹시 화가 났다. 그것은 바로 가공할 만한 두려운 고통의 광경이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자녀들은 부모들을 그리고 형제들은 자매들을, 자매들은 형제들을 서로 가혹하게 책망하였다. 사망에서 통곡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이 재난을 면하게 해 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사람은 너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향하여 심한 욕을 퍼부으며 비난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외쳤다. 너희는 우리에게 이 때에 관하여는 말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준 자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광신자들이요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며 저주했다.” - 초기문집, 281, 282.

5.

가. 1844 가? 14:12; 15:2.

“ ”
 “ ”- 5 ,216.
 “ ”- ,591.
 가? 14:1; 7:4.
 가?

“ 가 ”- ,15.
 “ 가 ”- 5 ,212.
 “ 가? 가 ”- [E.G.]7 ,968.
 가 ”- [E.G.]7 ,970.

7:49

1. 가?
2. 가?
3. .
4. 가?
5. 144,000 가?

첫째 안식일 연금들



👉 4월 7일
우크라이나의
키예브 (4p 참조)

5월 5일 👉
부룬디의 부줌부라
(25p 참조)



👉 6월 2일
파나마를 위하여
(46p 참조)

